

# P-X, 10월 공급부족 우려

KP케미칼, 10월 No.2 50만톤 플랜트 20일간 가동중단 ... 가격 급등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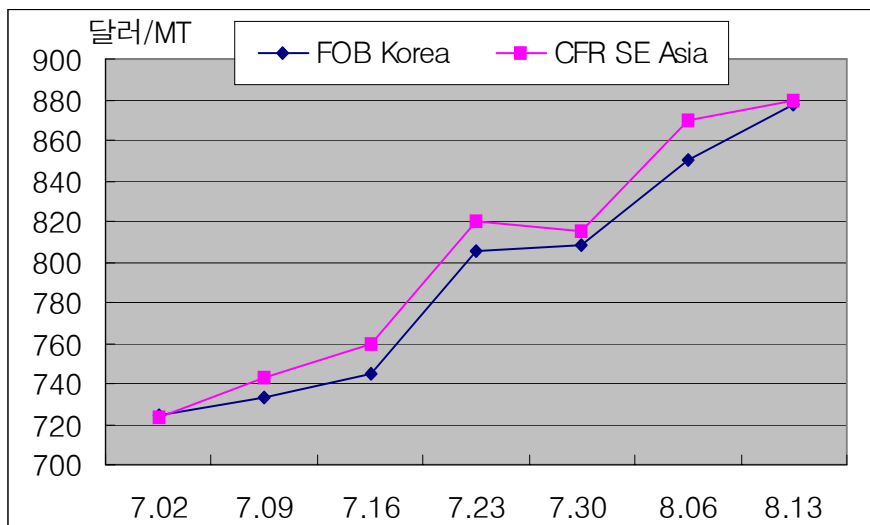
KP케미칼(대표 최삼길)이 No.2 P-X(Para-Xylene) 50만톤 플랜트를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정기보수를 실시하기 위해 가동중단에 들어간다.

LG-Catex정유도 7월에서 연기된 No.2 35만톤 플랜트의 정기보수를 8월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파업여파로 전 플랜트의 완전 정상화까지 정기보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P-X 생산능력은 LG-Caltex정유 100만톤, KP케미칼 70만톤, S-Oil 60만톤, SK 65만톤, 삼성Atofina 48만톤, 현대Oil-Bank 30만톤 등 343만톤으로 현재는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생산 및 수요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.

그러나 국제유가 급등과 Xylene 가격상승으로 P-X 가격은 1달 사이에 100달러 이상 급등해 7월2일 FOB Korea 톤당 727달러, CFR SE Asia 톤당 723달러에서 7월23일 800달러를 넘어섰으며 8월13일에는 FOB Korea 톤당 878달러, CFR SE Asia 톤당 880달러를 기록했다.

P-X 가격추이(2004)



한편, 국내 P-X 가격은 ACP(Asia Contrative Price)를 기준으로 결정되며, 분기별로 월별 가격을 평균해 산정하는데, ACP는 아시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ExxonMobil과 BP 거래가격이 기준이다. <심주영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8/20>